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학업의 의미 : 박사과정생 중심으로

임윤미¹, 이신애¹, 송혜영¹, 박효정^{2*}

¹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

²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The Meaning of Study in the Convergence Role of Married Nursing 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Doctoral Students

Yunmi Lim¹, Shinae Lee¹, Hyeyoung Song¹, Hyojung Park^{2*}

¹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경험하는 학업의 본질과 의미를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자료분석 절차를 따랐다. 연구 참여자는 직장, 육아 및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학 박사생 4명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2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대학원 진학 전후의 학업에 대한 생각, 느낌,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12개의 개념과 5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5개의 범주는 '누구보다 나는(flying)것을 즐기는 나', '그들과 또 다른 나',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 '가족은 나의 힘', '꿈이 있는 나'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기혼간호사들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가족의 배려와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 간호, 기혼, 대학원생, 융합역할, 학업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depth and deeply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academic experience that married nursing graduate students have experienced in their Convergence roles. **Methods:** Giorgi(2004) method was used the four-step data analysis procedure following the technological phenomena. Participants were four nursing doctoral students who were involved in work, child-care. and educa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wo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from October to November 2017. **Results:** Data analysis was structured into 12 concepts and 5 categories, centered on thinking, feelings, and changes in life for study before and after entering graduate school. The five categories are 'I enjoy flying more than anyone', 'I am different from them', 'A solitary journey toward a dream', 'Family is my strength' and 'I have a dream.' **Conclusions:** In order to help married nurses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to build a support system for the family,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a socially practical support system.

Key Words : Convergence Role, Graduate student, Married, Nursing, Stud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진출하는 여

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률은 58.6%으로 증가하였다[1].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상급 학교 진학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 박사 인구는 2007

*Corresponding Author: Hyojung Park(hyojungp@ewha.ac.kr)

Received July 24,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October 1,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년 2,532명에서 2012년 4,015명으로 남성의 증가 폭보다 크다[2]. 여성 박사 비율이 높은 분야는 간호학을 포함하는 의학 계열이 2위로 나타났다[3].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지식,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해야 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간호업무 외에 환자 가족과의 상담 및 교육까지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4-6].

간호사들의 대학원 진학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 전문직의 사회적 역할 이행, 직무 만족, 자아존중감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 8]. 그러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간호사의 대부분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10]. 따라서 학업을 병행하는 기혼간호사의 학업 경험과 스트레스 및 대처수준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과반수가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진학 동기는 자기계발, 자격유지와 승진 등을 들었고,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시기는 졸업 후 5년 후를 가장 선호하였다[10-11]. 그러나 이 시기는 실제로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을 비롯한 가정생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내, 엄마, 직장여성, 며느리, 딸 등의 융합적 역할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라는 추가 역할을 선택하는 여성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슈퍼 맘’, ‘전문적인 여성’으로 보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쟁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한다’, ‘팔자가 좋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실정이다[12]. 이러한 견해 가운데에 간호학 박사생들은 융합적 역할수행자로 생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간호학 박사생들의 대학원 생활에 대해 가정생활을 함께 고려하며 이해를 시도한 경우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 박사과정 학생들의 버거움에서 벗어나는 과정 경험[13], 간호 전문직에 종사하는 간호학 박사과정 체험이 연구[14],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 생활 경험[15]이 전부이다. 이는 석·박사 과정을 통합 대상자들의 대학원 생활과 가족의 역할만을 본 연구만이 있었다. 이에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삶의 본질과 간호학 박사생의 융합적 역할 내 학업의 의미를 심층적

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간호대학원생에게 융합적 역할 내 학업의 경험의 이해를 통해, 대학원생의 학업 선택의 본질과 역할 안에서 경험하는 학업에 따른 삶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혼 대학원생들의 학업을 돕고, 사회적으로 정책의 수립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간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간호대학원생이 융합적 역할 내 경험하는 학업의 본질과 의미를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깊이 있게 기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혼 간호대학원생은 융합적 역할 내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2.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학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학력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경험하는 학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Giorgi[16]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현상을 기술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17].

2.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직장생활과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혼의 간호학 박사과정 학생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받아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참여를 동의한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술내용 중 의미 있는 진술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3명의 참여자는 박사 4학기 학생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박사 3학기 학생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

Participants	Age	Family	Career	Semester
1	42	Husband, son & daughter	Nurse-16yr Lecture-6Month	4
2	38	Husband, son & daughter	Nurse 15yr	4
3	40	Husband, son	Nurse 17yr	3
4	34	Husband, son	Nurse 15yr	4

2.3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와 거부 및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면담내용의 녹음을 위한 녹음기 사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 참여자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된 전체 면담 내용은 개인 정보는 기밀로 간주하고 익명성 보장을 위한 식별코드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출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2.4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자들은 간호학 박사과정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다. 간호학 대학원생들은 타학과 전공자들과 다르게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 있어 충분히 바쁘고 힘들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박사과정을 진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들의 왜곡된 시각이 분석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성일지를 작성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질적 내용 분석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검토와 외부검토를 하였는데[18], 내부검토 과정은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적 진술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동료 검증 과정으로 연구자 간 비교 분석하여 의미 단위 선정을 위해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베일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외부 검토로는 자료수집 분석 및 결과 도출까지 질적 연구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에게 자문하여 분석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서면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쳤다.

2.5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7년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구 참여자들과 2회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면담 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개방식 질문을 하였으며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재구성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사생활이 지켜지고 면담내용이 보장될 수 있으며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곳으로 선택하였다. 면접 장소는 학교 강의실이나 카페를 이용하였다. 면접을 시작하였을 때 인터뷰 틈틈이 일상생활에 관한 편안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첫 질문은 “박사 학위를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의 견해나 의견이 개입하지 않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말에 해석적인 말은 지양하였다. 면접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또한 면접 내용이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각들은 메모하였다.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학생 1인의 참관자를 동행하였다. 2차 심층 면담은 이후에 필요에 따라 전화면담이 1~2회 더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Giorgi[16]는 Husserl의 현상학의 원칙에 따라 현상학을 이끄는 주체는 ‘상태 그 자체’의 의미를 중요시했으며 ‘상태 그 자체’는 다양한 현상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세계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7]. 또한 Giorgi[16]는 ‘생활 세계(life world)’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어떠한 반성 이전에 우리가 사는 것으로서의 세계’이며, ‘그 생활 세계가 가진 의미는 심리학이 그것

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는 ‘그것들이 어떻게 경험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그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9-20].

따라서, 본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다양한 현상을 통해 실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세계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점[17], 둘째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술(description)이 중요하며,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자세를 취한다는 점[21]과 생활세계에 대하여 체현한 대로의 직접적인 기술이라는 점과 셋째, 참여자 개별적인 경험 속에서 일반적 체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19-20]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Giorgi, Colaizzi, Benner, van Manen, Moustakas 등이 제시하는 현상학적 체험연구[22] 중 Giorgi의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에 대해 완전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대상자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16]. 따라서 연구 참여자 4명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Giorgi[16]가 제시한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16-17].

본 연구에서 Giorgi[16]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을 따른 다음 4단계의 자료 분석 절차를 따랐다. 1단계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탐색을 한다. 이것은 다음 단계의 분석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마친 후 녹음파일과 필사본을 반복하여 듣고 읽기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다. Giorgi[23]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녹취는 생생한 경험의 보존이기에 연구연구자 스스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단계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중심의미를 나누는 작업이다. 연구 주제인 ‘고학력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의미 단위로 구별하였다. 1단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와 맞는 경험들에 표시하며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1은 45개, 참여자2는 49개, 참여자3은 67개, 참여자4는 35개로 총 19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3단계는 의미 단위들을 연구자의 언어 즉 학문적 언어로 전환하는 단계로 Giorgi[16]는 이 단계에서 연구자의 자유 변경(imaginative variation)과 암시적 표현을 명시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중첩되는 의미 단위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바꾸고, 표로 정리하며 의미들을 전체의 의미와 연관 지으며 유사어구들을 비교와

대조하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언어로 전환하였다. Giorgi[23]의 제안에 따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관용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따랐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연구자의 언어나 학술적 언어로 선불리 가감할까 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회에 걸쳐 연구자들이 모여 주제어를 전환하는 작업을 하여 중심의미 총 28개를 도출하였다.

4단계는 전환된 의미 단위를 기초로 하여 경험과 통합하는 단계이다. 의미 단위와 경험의 통합은 일관된 기술을 통해 주제 즉 본질을 찾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중심의미-개념-범주의 순으로 범주화하고, 그 과정에서 원 자료를 다시 읽고 검토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되어 들어가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12개의 개념과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고학력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학업 경험은 박사과정 진학 후 학업과정에 있어서 생각, 느낌,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4명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표현한 19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면서 중심의미는 28개로 규명하였으며 12개의 개념과 5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3.1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Giorgi[16]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절차를 따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먼저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요약하였다.

[참여자1]

42세인 참여자1은 대구에 있는 K 대학교에서 박사 4학기에 재학 중이다. 학부 졸업 후 종합병원에서 16년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간호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 병원에 다니고 있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고 조언을 듣게 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 직장과 학업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현재의 생활에 만족감이 높은 편이다.

[참여자2]

38세인 참여자2는 서울에 있는 E 대학교에서 박사 4학기에 재학 중이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박사학위를 받으면 고향인 강릉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엄마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한다. 전문 간호사라는 직함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3]

40세인 참여자3은 서울에 있는 E 대학교에서 박사 3학기에 재학 중이다.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나이트 전담으로 근무를 바꿔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육체적·정

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편이다.

[참여자4]

34세인 참여자4는 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 1회 서울로 KTX를 타고 와서 대학원 수업을 듣는 박사 4학기 학생이다. 박사 1학기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학기 때 출산을 하여 학업,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으며 아이가 아직 어려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지금 자녀가 17개월로 엄마가 곁에서 있어 줘야 할 시기이나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3.2 연구 참여자들의 역할 내 경험 구성요소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박사과정 중 경험과 이후 기대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시간의 자연적 흐름에

Table 2. The Components of the Study within the Convergence Role of Married Nursing Graduate Students

Category(5)	Concept(12)	Central mean(28)
I enjoy flying more than anyone	Time to know me	·Mannerism ·Lack of knowledge ·I'm scarce
	Enjoyment of learning	·Idolize educators ·Thirst for knowledge ·Better today than yesterday
	Pathway for self-satisfaction	·Rising confidence ·Increased life satisfaction
I am different from them	Work colleagues' gaze	·Encouragement and support ·Negative messages
	We are in the same class as graduate school	·Attract and encourage each other ·Teamwork
A solitary journey toward a dream	Busy everyday	·A never-ending task ·Split time
	Physical pain	·I buy hardships ·A hard week ·Lack of sleep ·Physical difficulty
Family is my strength	Family is a strong supporter	·Commitment of the mother ·Husband's support
	The role model of children	·I am a mirror of a child ·Mom is an important person
	A sorry love	·I can not go to the child. ·The heart that did not give much love
I have a dream	A dream to become an educator	·A good educator ·A respected teacher
	A dream for a happy old age	·A versatile person ·Aging without agony

따라 서술하는 자연사 접근법에 따라 구조화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학력 기혼 대학원생의 역할 내 경험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시·공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현상이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고학력 대학원생의 역할 내 경험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범주는 총 5개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누구보다 나는(flying) 것을 즐기는 나’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기 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진학 동기와 학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둘째, ‘그들과 또 다른 나’는 학업을 시작하면서 직장에서의 경험과 대학원생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셋째,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은 학업 과정 중 힘들과 갈등을 의미한다. 넷째, ‘가족은 나의 힘’은 학업 중 도움을 받는 지지체계에 대한 내용과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엄마와 아내의 역할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나’는 학업이 주는 미래에 대한 기대 결과에 대해 주제들을 구성하였다. 고학력 대학원생들이 경험하는 역할 내 경험의 본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5개의 범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소설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24]을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2.1 누구보다 나는(flying) 것을 즐기는 나

3.2.1.1 나를 아는 시간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간호사들이다.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라는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8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시간(overtime), 육체적·정신적 집중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쉬는 날에는 여가 시간 활용 및 취미활동을 하기 보다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 수면을 취하면서 체력 보충의 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상이 단조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 현장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함과 함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매너리즘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타성에 젖지 않고 이러한 시간을 ‘자신을

알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사고를 전환하였다.

일만 하면서 지내는 기존의 시간들이 너무 단조롭고 신랄도 학생이라서 별로 손이 안 갔고 그때는 아이도 없을 때여서 너무 평범한 시간들이 싫었어요.병원을 stable 하게 다니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참여자1).

그전에는 일상에 너무 치여서 그냥 반복된 병원, 집, 병원, 집...그랬었어요.(중략)..내가 가진 지식의 부족, 협소함을 몸으로 느꼈고 그것이 조금은 부끄러웠어요.간호학에 대한 나의 지식이 폭이 너무너무 좁구나.좀 더 방대한 간호학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공중보건이라든지 보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참여자1).

일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공부를 시작한 건 단순 학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중략)...일하다 보면 공부한 사람들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참여자2).

참여자들은 마치 한 마리의 갈매기가 되어 긴 여정을 준비하기 위한 조나단 같았다. 이른 아침 갈매기들이 바닷가에서 먹이를 찾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는 반복된 일상은 갈매기들 인생의 전부이다. 그 갈매기들에겐 새로운 꿈이 없었다. 그러나 조나단은 이러한 삶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고 먹는 것보다 높이 날아오르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시간을 모두 나는 연습을 하는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배울 것이 너무도 많은데!!(갈매기의 꿈 #).

3.2.1.2 배움의 즐거움

대학원 진학 동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아는 시간을 갖게 된 대상자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매너리즘과 부족한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깨닫게 된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은 이전부터 뭐든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범생이었으며 공부하는 사람과 교육자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에 배움 그

자체가 좋아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배우는 즐거움은 단순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 간호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무언가에 대한 늘 목마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좀 더 깊고 넓게 함으로써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참여자1).

내가 무엇인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로 발전하는 것 같이 하나씩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기쁨이 있죠(참여자4).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먹는 일보다는 나는 일이 더 중요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되는 일상보다는 간호대학원생으로 간호학을 공부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찮은 먹이를 얻기 위해 끝없이 고기잡이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게 오가는 대신 삶의 이유를 갖게 된 것이 대!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갈매기의 꿈 4).

3.2.1.3 자기만족을 위한 통로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학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지식이 채워지는 느낌과 학부 때는 배울 수 없는 심층적인 간호 이론과 연구들을 배움으로서 간호업무의 확장과 자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스스로 동경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자신감이 상승하였다.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만족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자신감 상승과 삶의 만족도 상승으로 발전하였다.

공부를 하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학위를 가짐으로써 행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많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간호사고 병원에서 수간호사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활동 범위에 비해서 나의 역할에 비해서 석사를 가지고 박사를 가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1).

석박사 다 있고 병원 경력도 충분하고 이 정도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2).

갈매기 조나단은 나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죠 그는 힘들지만 즐거웠어요 그리하여 조나단 자신은 완전하고 무한한 갈매기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깨달음을 아는 순간 커다란 환희의 충격에 사로잡히(갈매기의 꿈 4).

3.2.2 그들과 또 다른 나

3.2.2.1 직장 동료들의 시선

간호 대학원 박사과정은 직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받는다. 그래서 3교대를 하는 간호사들이 사직하지 않고도 쉬는 근무(오프)를 받아 학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직업 특성상 자신이 휴무이면 동료 중 한 명이 대신 근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기 중에는 동료들의 배려와 응원도 있지만 대신 근무를 해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는 참여자들은 괜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동료들의 일을 대신하기도 하며 on call(대기 근무) 전담이나 나이트 전담과 같은 힘든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매주 같은 요일에 오프를 받으려면 그만한 가치의 업무를 대신 감내해야 하므로 학업 중에는 부담감을 늘 안고 공부를 해야 한다.

박사 진학 후에는 같은 요일 오프를 받아야 하니까 직장 다른 사람이 좀 불평을 할 수 있죠(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중략).. 병원에서 욕먹을 때가 있어요 학교 공부한다고 너 이렇게 빠지면 되네 질타받을 때도 있어요 ‘일하고 공부하니깐 넌 이거 해.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공부하잖아’ 이럴 때는 후회돼요 병원에서 지원은 전혀 없죠 공부하겠다고 하면 연차 다 없애면서 수업을 듣고 또 빠진 만큼 채워야 하고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한 call을 다 내가 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요(참여자2).

제 관리자는 박사까지 왜 하려고 하느냐며 ‘오버 스펙 아니냐는 말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병동은 인력이 없고 수업 때문에 금요일마다 오프를 줘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같아요(참여자3).

직장에서는 관리자가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근무표도 금요일마다 오프 빼주시고 나머지 동료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세요(참여자4).

갈매기 조나단의 친구들과 형제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쓸모없는 고생을 자처하냐고 했어요 연장자 갈매기는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친구와 형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나단은 혼자 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갈매기의 꿈 中).

3.2.2.2 우리는 대학원 동기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는 다르게 팀별 과제가 과목마다 주어지고 조별 발표수업과 매주 다수의 저널 review가 있어 혼자서 학점을 이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대학원생들끼리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 공부를 함으로써 부족한 면은 서로 채워주고 아는 지식은 나누며 서로가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배를 탄 선원이 된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 만족감이 상승하는 경험하게 되었다.

교우관계도 만족스럽고 교우들 특히 같은 수업을 들을 때는 마치 우리가 한 배를 탄 선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한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 새로운 팀워크이라는 것을 배우고 마치게 되니까(참여자1).

대학원 진학은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래저래 시간은 흘러가니까 조금 고생스럽긴 해도 배워가는 이 시간이 즐거워요 박사과정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모르고 지나갈 지식들 수업을 통해 조별숙제를 통해 많이 배웠죠(참여자4).

조나단은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갈매기 무리를 만나게 된다. 그들 모두 삶의 목적은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완벽함에도 도달하는 것이었다. '우린 너와 같은 갈매기야, 조나단. 우린 너의 형제들이야. 넌 할 수 있어. 조나단은 그곳에서 많은 날을 비행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갈매기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고 그 일에 있어서 완전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나는 것이었다(갈매기의 꿈 中).

3.2.3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

3.2.3.1 바쁜 일상

기혼 간호대학원생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하기에 역할 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터득한다.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한다. 근무할 때, 아이들과 놀아줄 때, 대학원 과제나 집안일을 할 때 등 1분을 10초씩 쪼개서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때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혹사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미안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3교대 틈틈이 공부했어요. 이브닝(오후 근무) 출근 전에 오전에 공부하고 숙제하고 테이 근무 끝나고 공부하고 어떤 때는 나이트(밤 근무)때 일 다 해놓고서 잠나는 시간 1-2시간에 그 주 발표 준비했어요(참여자4).

일할 때도 과제 할 생각하고 발표할 생각을 하죠.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요. 나이트를 하니깐 정신이 맑다 싶으면 공부하고 나이트 해서 피곤하다고 멍하다 싶으면 자요. 그리고 또 아이 챙기고, 집안일하죠. 워낙 시간이 없으니깐 참여자3).

시간이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잠 못 자고 직장을 가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짧은 시간 동안 아이와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놀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깐 내 몸을 혹사시키고 그래요(참여자2).

그날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잠담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가 저문 뒤에도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했다. 그는 공중회전, 저속 회전 등을 터득했다(갈매기의 꿈 中).

3.2.3.2 신체적 고통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맡은 역할이 있기에 본인을 희생하면서 과하게 가정, 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참여자들에게 신체적 이상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위의 염려스러운 말을 듣기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책임감으로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고 있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고통의 과정은 일시적이며, 즐겁고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뭐 한다고 공부를 시작해왔고 이래 고생하노..그냥 살면 되자.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이고 내가 결정한 거니깐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순 없으니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내 몸이 힘들면 되니깐 내가 조금 덜 자면 되고 내가 허리 아프면 되고 그런 거니까 아휴슬퍼라 (참여자1).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어요 수면 부족이 제일 힘들어요. 병이 잘 걸리고 갑상선 항진증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는 거 같아요너무 힘든 과정을 살고 있어요 학기 중은 고난주간 언제 부활주간이 오는지..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너무 힘들어요그래서 병이 오는 거 봐요 참여자2).

몸이 아플 때는 후회스러워요. 지금 나이트 전담을 하고 있는데 숨이 차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살도 찌고 살이 찌서 숨이 차는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때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과제 많거나 하면 답답해서 숨이 차요약 먹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여자3).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 자기의 외계와의 싸움. 갈매기 조나단은 피나는 노력과 눈물겨운 인내로 마침내 하늘 높이 날 수 있게 된다(중략) 여러 가지 고도의 비행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눈부시게 빛날 거라고 생각했다(갈매기의 꿈 중).

3.2.4 가족은 나의 힘

3.2.4.1 든든한 지지자 가족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엄마를 떠올릴 것이다. 가족은 늘 곁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끔 잊기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간직하며 살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친정엄마에 대한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정엄마의 사랑과 헌신은 존재 이유이며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정신적 지지로 작용

하였다.

친정엄마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나도 없지 않을까..엄마의 영향은 긍정적인 지지자를 넘어서 나를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죠 늘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가족과 지지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우리 가족은 잘 했다. 잘 하고 있다. 곧 끝난다. 지금처럼만 해라. 이런 분위기예요 참여자1).

우리 집은 우리 엄마의 희생정신이 있어요. 엄마는 넌 무조건 해야 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요 (참여자2).

또한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서는 든든한 조력자이며 남편의 외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해 다른 아내들처럼 내조를 받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바쁘고,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편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력자예요. 아들을 돌봐주니깐요3교대니까 제가 근무 나갈 때는 아이 봐주고 등하곳길 봐주고 잠자는 거 봐주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까지 다니면서 자꾸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중략) 내 짐까지 지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맞출 건 맞춰야죠 남편은 놀거나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집 회사 집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도 큰 불평 안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 게 고맙죠그리고 보니 미안하고 고맙네요 참여자3).

남편에게 미안할 때도 있죠. 회식 가지 말라고 하면서 숙제하고 공부해야 하니깐 주말에 아이 좀 보라고 하면서 미안한 맘이 있죠 참여자2).

남편도 공부해야 하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아기를 봐야할 때 누가 보느냐 갖고도 많이 싸웠(참여자4).

설리번 스승은 조나단에게 이야기한다. 넌 백만 마리의 새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새라고 지금 세상에서 배운 것을 통해 다른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상도 지금과 똑같은 수밖에 없다고 갈매기의 꿈 중).

3.2.4.2 자녀의 롤 모델

연구 참여자들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자녀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 해주는 것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공부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간호사나 교육자의 역할이 아닌 아이들의 시선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인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빠르게 자라길 기대하고 있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빠가 선생님이라는 거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중략).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 해줘요 '우리 엄마는 박사야, '00대학교 박사공부하고 있어'. '너네 엄마는 아니잖', '우리 엄마는 논문 하느라 바빠', '우리 엄마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해주는 거 너무 기분 좋아요(참여자2).

내가 공부하는 걸 좀 따라 해 줬으면 해요. 내가 살아 있는 선생이죠 거울이고 또 거울이 되고 싶죠(참여자1).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 보고 싶어서. 간호사로만 있는 것은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아들은 일하는 제가 좋은지 병원을 오래 다니라고 했었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 중이죠(참여자3).

3.2.4.3 미안한 사랑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있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엄마 참여수업 및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함께 가장 큰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하는 모성애적 사고는 아이에게 측은한 감정을 일으켰고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

로 인해 아이들이 커서 정서불안이나 주의력 결핍 등을 갖게 될까 봐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가정 내 불화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이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깐 나에게 집착하는 거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한거 사랑을 많이 못 준거 특히 엄마 참여수업 있는 날인데 못 갈 때 첫째가 너무 불안해해요 첫째는 제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첫째 딸이 그런 거예요(참여자2).

아들에게 저를 바쁜 엄마 자꾸 화내는 엄마 일지도 몰라요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3교대 해서 밤에 같이 잠도 못 자주고 미안한데. 항상 제가 불안해요 혹시 정서불안이 아닐까 봐요 대학원 공부까지 한다고 놀아주지도 않고 눈뜨고 있을 때는 공부하고 눈 감고 있을 때는 자니깐요 항상 함께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니깐 미안해요

아이가 1학년인데 참여수업에 못 간적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깐 선택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못해주는 아쉬움이 제일 크죠(참여자3).

우리 막내딸하고 젤 갈등이 있죠 손이 젤 많이 가야 되는데, 엄마가 소꿉놀이도 해줘야 하는데, 그럼도 같이 그려줘야 하는데 맨날 컴퓨터 앞에 있으니깐. 예를 들자면 나는 엄마역할을 집에 가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고 과제 한다고 앉아 있으면 우리 아이가 늦게 자요그려면 이제 그걸로 인해 싸운 경우도 있고(중략) 아이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하면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니깐..이 아이가 크는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니깐.(참여자1).

3.2.5 꿈이 있는 나

3.2.5.1 교육자가 되고 싶은 꿈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배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배움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훌륭한 어머니상과 자아를 실현을 위한 통로로 박사대학원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교육자로 거듭나고자 하였으며 꿈의 실현에서 그치지 않고 후배양성과 간호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싶

어요.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참 대견하다. 간호학과에 오게 된 것이 마치 누군가의 뜻인 듯 느껴지고 참여자 1).

학교에서 좋은 교육자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죠.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2).

언젠가는 체력이 바닥나서 병원을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그때는 학교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차근차근 제 스펙 쌓고 있어요(최종 목표는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참여자3).

꿈을 실현한 조나단은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고 동료 갈매기들을 초월의 경지와 그것에 도달하는 길로 이끈다.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초월적 능력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누구나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갈매기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에게 심어준다 (갈매기의 꿈 中)

3.2.5.1 행복한 노년에 대한 꿈

미래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불안하게 여긴다. 그래서 노후준비는 아무리해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참여자들은 노후준비를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의 미래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세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불투명한 미래는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준비해간다면 어디든지갈 곳은 있지 않을까 참여자).

지금 배워두면 언젠가는 체력이 바닥나서 병원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학교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차근차근 제 스펙을 쌓고 있어요. 이후에 고생 안하고 하기 싫은 일 안하고 사는 거고 고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참여자3).

이제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처럼 상한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닌 싱싱한 물고기를 먹게 된다(그리고 공중에서 바람을 가로지르며 날아간다(창공을 나는 새, 비상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새(중략).. 조나단은 천천히 비행하는 어린 갈매기 플레처를 만난다(그는 플레처를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 플레처를 가르쳤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조나단은 여섯 마리의 제자가 더 늘어났다(그리고 그와 그의 제자들은 갈매기들에게 돌아갔다(갈매기의 꿈 中).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학력 간호대학원생이 융합적 역할 내 경험하는 학업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융합적 역할을 하는 고학력 간호대학원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들이 학업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들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학력 간호대학원생은 가정 내 육아, 직장생활과 학업 병행이 힘들지만,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누구보다 나는 것을 즐기는 나’라고 말하였다. 같은 길을 걷는 대학원 동기들에게는 팀워크를 배우게 되는 기회를 얻지만 직장 동료로부터는 부정적 시선을 느끼면서 ‘그들과 또 다른 나’를 경험하였다. 박사과정의 학업은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이지만 ‘가족이라는 사랑의 울타리’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꿈이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써 더 훌륭한 간호사와 교육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였다.

융합적 역할을 하는 간호대학원생을 심층 인터뷰를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누구보다 나는(flying) 것을 즐기는 나’로 설명하였다.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를 회상하면서 대상자들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지식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미 석사과정에서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기만족의 통로로 박사과정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강미정[25]의 연구에서는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이 대학원 학습 참여의 동기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챗바퀴’, ‘배움의 필요성’으로 개념을 표현하여 본 연구와 비슷하다. 강미정[25]은 자아 만족형으로 분류된 참여자들은 학습의 의미를 ‘학습하는 즐거움과 공부하는 것 자체를 행복과 설렘’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고학력 진학을 결심하는 여성들은 진

학을 결심하기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됨으로써 자기계발을 위한 통로를 찾게 된다.

둘째, ‘그들과 또 다른 나’로 설명하였다. 간호사를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직업 특성상 자신이 출근하지 않으면 그 일을 대신 직장 동료나 선배들이 대신 일을 해주어야 하고 근무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료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는 건 그들 스스로가 ‘자주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주적’이라는 용어는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주적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참여자들은 매너리즘과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자주적인 사고로 자기만족의 통로인 학업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동료들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새로운 동료인 대학원 동기들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팀워크를 경험하게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 학업과정을 병행하는 과정은 간호사들만의 일은 아니다. 안유리와 이대균[26]의 연구에서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는 유아교육 교사들의 경험에서는 ‘눈치 보기’, ‘따라가기 힘겨운 대학원 공부’라고 하였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대학원 공부는 혼자하기 힘든 과정’이라고 설명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다른 점은 간호대학원생은 힘든 과정을 함께 밀고 끌어주는 팀워크로 인해 큰 지지가 된 것이었다. 이는 간호 대학원 과정이 조별 과제나 팀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기혼여성의 대학원 생활에 대한 연구이며 직장을 병행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힘든 경험이며 지지체계나 지원이 없다면 결국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혼 간호대학원생들은 자주적 사고를 가지고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원은 대학원 진학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대체인력 투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동료들은 대학원생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한다.

셋째,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은 참여자들의 대학원 과정과 역할 내 경험이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수면 부족과 여가시간 부족, 취미활동 부족, 높은 스트레스

와 정신적, 신체적으로 강도 높은 간호업무를 하면서 신체적 이상 신호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바쁜 일상’과 ‘신체적 고통’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못 하고 혼자서 감당한다. 이러한 힘든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울기도하고 좌절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고통은 일시적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신자현 외[27]에서는 간호 전문직 기혼여성의 대학원 생활을 ‘갈등과 몸부림’으로 표현하였고, 김은하 외[28]에서는 기혼대학원생의 다중역할의 힘들음을 ‘소진하여 포기함’으로 표현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간호사, 엄마, 아내, 학생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한 가지 역할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한쪽에 비중을 두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역할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따라서, 기혼 간호사들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연차 사용 격려, 휴무 지원, 육아 가사 돌보미 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체계가 사회적,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은 나의 힘’은 참여자들이 힘든 학업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지지체계에 대한 의미이며 참여자들은 힘의 원동력을 가족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친정엄마와 남편과 자녀라고 대답하였다. 친정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은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남편에 대해서는 힘든 시기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라고 인식하면서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느낀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정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으나 시간 부족과 과다한 할 일들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박미숙[29]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자 유학생이 학업을 하는 동안 가족과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학업을 하는 원동력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유사한 점이며 학업은 가족관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모성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학교 행사나 모임, 면담 등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자녀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44.9%이며[1], 2명 중 1명은 맞벌이 가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초등학교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참석해야 하는 녹색 어머니회, 부모 참여수업, 독서 활동, 부모참여 운동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부부 중 한 명이 가거나 친정이나 시댁 어른들이 대신 가기도 하고 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참여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한 학교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가족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꿈'에서 참여자들은 행복해 보였다. 꿈을 꾸는 존재는 희망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다. 참여자들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눈에는 광채가 돌고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자랑스러운 엄마의 상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자의 꿈을 꾸고 있었으며 이러한 꿈은 행복한 노년을 상상하게 했을 것이다. 이 긴 여정의 끝은 자아실현인 것이다. 백은숙과 한상길[30]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의 의미에서 미래의 삶의 의미와 기대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의 추구'와 '배움의 가치 추구를 통한 당당한 삶'으로 설명한 것은 본 연구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인 조나단의 '꿈이 있는 자는 높이 날 수 있다.'는 말처럼 주어지는 먹이만을 먹는 건 무의미한 삶이며 스스로 높이 날아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갈매기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박사학위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교육자의 꿈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간호현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교대근무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노년에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고학력 기혼 간호대학원생들의 역할 내 학업의 의미는 자주적인 사고로 자아실현을 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꿈이었다. 그러나 여성전문직 종사자들은 결혼을 하면서 역할 증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와 여성에게만 편향된 육아는 경력단절과 학위과정 선택을 망설이게 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인 이유도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에게만 가중되는 역할과 함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를 포기해야하는 사회적인 제도의 부재가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병원은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간호대

학원생들이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동료 및 선후배들의 인식 개선과 대체인력 투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수면 부족,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고학력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힘든 학업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는 년차 사용 격려, 휴무 지원, 육아 가사 돌보미 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체계가 사회적,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한 학교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간호현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호 전문가양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로 인하여 기혼간호사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원 진학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기혼간호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개인이 경험하는 여성의 역할 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대표성을 갖지는 못한다. 또한 간호학 특성상 다른 학과의 대학원생과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된다. 따라서 기혼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융합적 역할 내 경험에 대한 연구와 다른 학과와 혼합하여 비교연구를 해 보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6). Major research on female worker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1), 1-20.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3623
- [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3. 2. 15). Women's policy domestic trend(Vol 231). <http://www.kwdi.re.kr/noticeView.kw?currtPg=61&sg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25&pnum=4&cnum=1&dvsn=&src=&srcTemp=&ntNo=2117>
-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4). *Doctoral Research(2015): Domestic New Doctorate Holders Survey*. Sejong : C. Y. Song, Y. M. Kim, H. J. Kim.

- [4] S. M. Park, I. S. Jang & J. S. Choi.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es' burnout in secondary general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4), 474-483.
- [5] Y. J. Kim, J. H. Lee, J. S. Ahn & Y. O. Park. (2015). A study on analysis of doctor human capital statue in korea.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5(3), 59-81.
- [6] C. H. Cho & S. B. Choi. (2017). Emotional labor and nursing service quality at medical care hospital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20(3), 21-46.
- [7] J. Y. Park & C. H. Woo. (2017). Convergence effect factors on career-preparation behaviou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85-92.
<https://doi.org/10.15207/JKCS.2017.8.7.085>
- [8] M. A. Trevizan, I. A. Mendes, A. Mazzo & C. A. Ventura. (2010). Investment in nursing human assets: education and minds of the future.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18(3), 467-471.
- [9] Y. I. Kim & B. I. Lee. (2010). Affecting factors on nurses' stress-coping in schoolwork.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9(2), 150-158.
- [10] I. S. Kim. (2009). *Debate on Labor Environment Improvement Policy*.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 [11] J. Y. Han & N. Y. Lee. (2016). Evaluated the needs for entry into graduate school as perceived by hospital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8), 109-122.
- [12] Korea Federation of Woman's Science & Technology Associations. (2014). *Challenges for Realizing a Campus that can be Compatible with Work and Family*. Seoul: Korea Federation of Woman's Science & Technology Associations.
- [13] J. S. Lee, K. G. Yoon, H. J. Lee, S. S. Hwang, M. S. Moon & J. M. Cho. (1996).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doctoral course students' process of getting out from bugeum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5(1), 67-82.
- [14] M. J. Kang et al. (200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female doctoral candidates in nursing. *Qualitative Research*, 4(1), 27-40.
- [15] J. H. Shin, K. O. Kang, S. J. Lee & H. S. Kim. (2016). Graduate school experiences of married women in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19-227.
- [16] A. Giorgi.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A: Duquene University Press.
- [17] K. R. Shin. (2004). *Research Methodology. Qualitative Research*.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18] Y. H. Jo. (2011). *Qualitative Approach to Child Counseling Research*. Seoul: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ress.
- [19] K. R. Shin & B. H. Kong. (2001).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Seoul: Hyunmoon.
- [20] M. Crotty. (1996).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Edinburgh New York: Elsevier Churchill Livingstone.
- [21] S. M. Park. (2012).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psychology in Korea.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13(2), 953-977.
- [22] J. W. Creswell, (2010).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ive Approaches 2nd Edition*. Seoul: Hakjisa.
- [23] A. Giorgi.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Seoul: The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 [24] B. Richard. (2008). *Jonathan Livingston Seagull*. Atlanta: Paw Prints.
- [25] M. J. Kang. (2016). A study of meaningful participation graduate learning experience for highly educated middle-aged women in career interruption.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2(2), 45-68.
- [26] Y. R. An & D. K. Lee. (2012).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work as a teacher while studying as a graduate studen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6), 27-52.
- [27] J. H. Shin, K. O. Kang, S. J. Lee & H. S. Kim. (2016). Graduate school experiences of married women in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19-227.
- [28] E. H. Kim, Y. O. Lim, G. S. Park & N. Y. Kim. (2008).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multiple role experience of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 113-125.
- [29] M. S. Park. (2017). An exploration on the compatible perception of studies and children of married female interna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Cultural Exchange*, 6(2), 67-86.
- [30] E. S. Baek & S. K. Han. (2017). The meaning for marriage migrant women to have college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179-199.

임 윤 미(Yunmi Lim)

[정회원]



- 201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학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 박사 수료
- 2000년 11월 ~ 현재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 관심분야 : 융합, 기초간호, 질적연구
· E-Mail : yunmimail@naver.com

박 효 정(Hyojung Park)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간호학 석사)
- 2005년 12월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간호학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 질적연구
· E-Mail : hyojungp@ewha.ac.k

이 신 애(Shinae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간호학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 박사 수료
- 1999년 8월 ~ 2011년 2월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질적연구
· E-Mail : aeshin2@hanmail.net

송 혜 영(Hyeyoung Song)

[정회원]



- 2008년 2월 : 차의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보건학 석사)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 지역사회간호학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질적연구
· E-Mail : lemonbam84@hanmail.net